

초기 부적응 도식과 심리적 부적응

조 성 호[†]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도식-중심 치료 이론(Young, 1990)에서 제안된 16개의 초기 부적응 도식이 심리적 부적응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기 225명과 314명으로 구성된 두 개의 피험자 표본에 대해 한국판 도식질문지, 간이정신진단검사, 편집성 척도,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 등을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에 대해 상관 및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초기 부적응 도식은 전반적인 정신병리 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적대감 등의 주요 정서 증상들과 편집성, 경계선 등의 주요 장애적 성격 특질들에 대해서 기존의 이론적 입장과 임상적 경험에 잘 부합하는 방식으로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Young(1990)의 이론에 대한 경험적 지지를 제공하며, 초기 부적응 도식을 이해함으로써 개인들이 겪는 심리적 부적응을 한층 더 폭넓고 심도있게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그리고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들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초기 부적응 도식, 심리적 부적응

조성호는 카톨릭대학교 심리학과에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조 성 호, (420-74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카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 032)340-3278 E-mail : chosho@www.cuk.ac.kr

인지치료의 초점은 내담자의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케 하는 기저 신념(underlying belief)을 변화시키는 데 두어진다. 이런 기저 신념을 확인하고 변화시키지 않으면 내담자의 심리적 부적응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인지치료 이론의 기본 입장이다(Beck, 1976). 이런 맥락에서, Beck (1995)은 개인의 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근원적인 수준의 신념, 즉 핵심 신념(core belief)의 수정이야말로 인지치료의 궁극적 목표이자 최종 목적지임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기저의 원인에 대한 인지치료의 이같은 관심은 인지치료가 성격장애에 대한 치료 이론으로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중요하게 부각되게 되었다. 인지치료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성격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도식이므로(Beck & Freeman, 1990), 부적응을 유발하는 병인적 도식(pathogenic schema)의 유형과 내용을 확인하는 일은 인지치료 이론의 핵심 과제인 셈이다.

인지치료 이론의 틀 내에서 부적응 도식에 대한 이론적 관심은 꾸준히 있어 왔다. 예를 들어, Beck(1967), Segal(1988) 등과 같은 인지치료 이론가들은 개인의 자기-개념의 중추를 구성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신 구조로서의 도식을 상정하면서, 이러한 도식으로 인해 자기와 타인, 및 외적 현실에 대한 정보 처리 과정이 어떻게 왜곡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왜곡이 어떻게 심리적 부적응으로 귀결되는지를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이론적 노력들 중에서 최근 들어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Young(1990)이 제안한 ‘도식-중심 치료(schema-focused therapy)’ 이론이다.

도식-중심 치료 이론에서 심리적 문제를 초래하는 도식은 초기 부적응 도식(Early Maladaptive Schema)이라 불린다(Young, 1990). 초기 부적응

도식은 자기와 환경을 이해하고 다루어 나가기 위한 참조의 틀로서 기능하며, 아동기 시절의 중요한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Young (1991)은 만성화되거나 심각한 수준의 심리적 문제를 초래하는 16개의 초기 부적응 도식들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Emotional Deprivation, Social Isolation, Abandonment, Mistrust/Abuse, Vulnerability, Subjugation, Defectiveness/Shame, Failure to Achieve, Enmeshment, Dependence/Incompetence, Self-Sacrifice, Emotional Inhibition, Social Undesirability, Unrelenting Standards, Entitlement, 및 Insufficient Self-Control.

Young은 위에서 제시된 16개의 초기 부적응 도식들을 평가하기 위하여 도식 질문지(Schema Questionnaire)를 개발하였다(Young, 1990; 1991 개정). 이 질문지는 각각의 초기 부적응 도식들을 총 205개의 문항을 통해 자기보고식으로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질문지는 Schmidt, Joiner, Young과 Telch(1995), Lee, Taylor와 Dunn(1999)의 연구 등을 통해 임상적 타당성과 경험적 유용성을 지닌 측정 도구임이 밝혀지고 있다.

Schmidt 등(1995)은 각기 1,129명의 대학생과 187명의 정신과 외래 환자들에게 도식 질문지를 실시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도식 질문지의 요인 구조를 확인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요인 분석에서는 Young(1990)이 제시하였던 16개의 초기 부적응 도식들 중 12개가 확인되었으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요인분석에서는 16개의 초기 부적응 도식들 중 15개가 확인되었다. Lee 등(1999)은 호주에 거주하는 433명의 정신과 외래 및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도식 질문지를 실시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6개의 요인들이 산출되었는데, 이 중 14개 요인들은 Young이 이론적으로 제안했던 초기 부적응 도식들과 그대로 일치한 것이었다.

한편, 조성호(2001a)는 도식 질문지를 833명의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요인구조를 확인한 바 있는데, Young(1990)이 제안하였던 16개의 도식들 중 15개의 도식들을 거의 원형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조성호(2001b)는 225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한국판 도식질문지에 포함된 16가지의 초기 부적응 도식들이 한국인들의 적응적 또는 부적응적 방어 유형(defense style)을 설명하고 변별해내는 데 있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대인관계상의 특징들(외향/사교적 대인관계, 온화한 대인관계, 오만/타산적 대인관계, 냉담한 대인관계 등)을 설명해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들은 초기 부적응 도식이 유용한 이론적 구성개념일 뿐만 아니라 경험적 실체이기도 하고, 특정 문화권에서만 발견되는 문화-특유적 현상이 아니라 여러 문화들에 걸쳐서 확인되는 문화-보편적 현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들을 재확인하고, 일반화시키고, 확장하는 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기 부적응 도식들이 심리적 부적응, 즉 전반적인 정신병리, 주요 정서 증상(우울, 불안, 적대감 등), 그리고 주요 장애적 성격특성(편집성, 경계선 성격특성 등)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초기 부적응 도식의 임상적 타당성과 유용성에 대한 부가적인 경험적 증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일상에서의 삶의 문제는 마음 깊은 곳에 위치한 뿌리(즉, 인생 초기에 형성된 부적응 도식) 문제의 반영일 것이라는 점이 좀 더 분명해지기를 기대한다.

방 법

피험자

본 연구에 포함된 피험자들은 2개의 표본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표본은 서울·수도권 소재 대학 재학생 225명(남 69명, 여 156명)으로서 이들의 평균 연령은 21.66세(표준편차 3.89), 범위는 18~45세였다. 두 번째 표본은 서울·수도권 및 지방 소재 대학의 또 다른 재학생 314명(남 132명, 여 182명)으로서 이들의 평균 연령은 21.56세(표준편차 2.23), 범위는 18~35세였다. 첫 번째 표본의 피험자들에게는 한국판 도식질문지와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를 실시하였고, 두 번째 표본의 피험자들에게는 한국판 도식질문지와 편집성 척도,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 등을 실시하였다.

도구

한국판 도식질문지

한국판 도식질문지의 요인분석(조성호, 2001a)에서 구해진 16개의 요인(부적응 도식)들을 사용하였다. 16개의 도식들은 실패/무능, 정서지지 결여, 절대기준/완벽, 비분리, 예측/굴종, 불신, 내성취약, 배려/희생, 결합, 고립/단절, 의존, 상실우려, 파국, 충동/분노, 자기우월, 및 몰락 등이다. 이 16개 도식들은 각기 4~24개의 문항들로 구성되며, 응답자들은 각 문항 진술문이 자신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에 따라 6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6점: 전적으로 그렇다) 상에서 응답하게 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측정되는 도식의 특징이 더 많이 반영된 것으로 간주된다. 각 도식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Cronbach α)는 평균 .88(범위: .75~.95)이었다.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

간이정신진단검사(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는 개인들이 호소하는 임상 증상들을 9개의 하위 차원에서 측정하는 90문항의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이 검사는 각 하위 척도별로 점수가 계산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심리적 증상들을 증상의 유형별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병리의 전반적 심각성에 대한 지표(global index of psychopathology) 역시 제공한다.

편집성 척도

이 척도는 편집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Fenigstein과 Vanable(1992)이 개발한 20문항의 자기보고형 검사인 Paranoia Scale을 이훈진과 원호택(1995a)이 우리 나라 피험자를 대상으로 타당화한 것이다. 응답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0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항상 그렇다) 상에서 응답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편집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 척도의 반분신뢰도는 .87, 내적 합치도(Cronbach α)는 .88이었고, 요인분석에서는 전체 변량의 28.4%를 설명하는 단일 요인이 추출되었다(이훈진, 원호택, 1995a).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

이 척도는 경계선 성격장애의 핵심 성격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Morey(1991)가 개발한 24문항의 자기보고형 검사인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Borderline Features Scale을 홍상환과 김영환(1998)이 우리 나라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것이다. 타당화 과정에서 문항-총점 상관이 매우 낮은 1개 문항이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2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4점 척도(0점: 전혀 그렇지 않다, 3점: 매우 그렇다) 상에서 응답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계선적 성격

특성이 더 많이 반영된 것으로 간주된다. 홍상환과 김영환(1998)은 이 척도의 요인분석에서 ‘정서 통제’, ‘부정적 관계’, ‘정체감 문제’, ‘기분의 안정성’, ‘자기손상’, 및 ‘양가적 관계’ 등의 6개의 요인을 얻었는데, 이들은 각기 전체 변량의 10.24%, 9.77%, 9.62%, 8.50%, 8.09%, 및 5.80%를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 α)는 .84였고, 6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5로 보고되었다.

분석방법

먼저, 표본 1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한국판 도식질문지의 요인분석에서 구해진 16개 요인(부적응 도식)과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의 전반적 정신병리(전체심도지수) 및 주요 정서 증상들(우울, 불안, 및 적대감 증상)간의 상관을 구하였다. 또한 전반적 정신병리와 주요 정서 증상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16개 부적응 도식을 예언변인으로 하는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표본 2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16개 부적응 도식과 주요 성격장애의 성격특성(편집성 및 경계선 성격특성)간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성격장애 특성을 종속하고 16개 부적응 도식을 예언변인으로 하는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부적응 도식과 전반적인 정신병리간의 관계

상관 분석 결과

부적응 도식과 전반적인 정신병리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표본 1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표 1. 부적응 도식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전체심도 지수와의 상관

부적응 도식	평균(SD)	GSI ¹⁾
실패/무능	47.78(14.03)	.58**
정서지지 결여	27.42(9.45)	.49**
절대기준/완벽	44.64(11.93)	.17*
비분리	25.44(7.09)	.42**
예속/굴종	31.96(7.63)	.39**
불신	31.82(7.50)	.49**
내성취약	32.91(7.96)	.43**
배려/희생	34.20(7.78)	.07
결함	23.03(8.47)	.56**
고립/단절	18.72(6.93)	.55**
의존	16.85(4.97)	.39**
상실우려	20.15(5.84)	.55**
파국	11.12(4.22)	.60**
충동/분노	15.69(3.98)	.47**
자기우월	16.37(4.58)	.13*
몰락	9.68(3.42)	.53**
전체도식	407.77(72.82)	.67**

¹⁾ 전체심도지수(Global Severity Index)

* $p < .05$, ** $p < .001$

한국판 도식질문지의 16개 부적응 도식 점수와 간이정신진단검사의 전체심도지수(Global Severity Index)간의 상관을 구하였다. 그 결과를 각 부적응 도식의 평균(표준편차)과 더불어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서 배려/희생과 전체심도지수와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대기준/완벽과 자기우월의 경우에는 전체심도지수와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하였으나 그 크기가 .20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다른 부적응 도식들은 전체심도지수와 .39~.60에 이르는 상관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부적응 도식들을 전부 합한 전체 도식 점수와 전체심도지수간의 상관은 .67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다회귀 분석 결과

전반적인 정신병리를 설명하는 주요 부적응 도식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심도 지수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16개 부적응 도식을 예언변인으로 하여 step-wise 방법으로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전반적 정신병리의 지표인 전체심도지수에 대한 16개 부적응 도식의 중다회귀 분석에서는 파국, 결함, 몰락, 고립/단절, 절대기준/완벽 등 5개의 부적응 도식들이 회귀식에 투입되어 전체 변량의 49.7%를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5개의 부적응 도식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모두 정적 부호(+)를 가져 이 도식들의 특성이 더 많아질수록 전반적인 정신병리의 심각성 수준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전체심도지수에 대한 부적응 도식의 중다회귀 분석 결과

예언변인	회귀계수	R ²	R ² 변화량	F변화량	p값
파국	.327	.363	.363	127.258	.000
결함	.186	.449	.086	34.588	.000
몰락	.151	.470	.021	8.557	.004
고립/단절	.176	.485	.015	6.445	.012
절대기준/완벽	.110	.497	.012	5.106	.025

부적응 도식과 정서 증상간의 관계

상관 분석 결과

부적응 도식이 우울, 불안, 적대감 등의 주요 정서 증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표본 1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16개 부적응 도식 점수와 간이정신진단검사의 우울, 불안, 및 적대감 척도 점수간의 상관을 구하였다. 우울, 불

안, 및 적대감 척도의 평균(표준편차)과 상호 상관을 표 3에, 부적응 도식과의 상관을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로부터 배려/희생과 우울, 불안, 적대감 등의 정서 증상과의 상관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절대기준/완벽의 경우에는 우울 및 불안 증상과의 상관이 유의미했으나 그 크기가 매우 작았으며, 적대감 증상과의 상관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자기우월의 경우에는 우울 및 불안 증상과의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았고, 적대감 증상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나 그 크기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이 3개의 부적응 도식을 제외한 나머지 13개의 도식들은 모두 우울, 불안 및 적대감 증상과 .29~.57에 이르는 상관을 나타내 보였다.

표 3. 정서 증상들의 평균(SD)과 상호상관¹⁾

변 인	평균(SD)	불안	적대감
우울	46.15(8.41)	.78	.56
불안	46.09(8.04)		.59
적대감	46.60(7.71)		

¹⁾ 모든 상관은 .001 수준에서 유의미

표 4. 부적응 도식과 정서 증상의 상관

부적응 도식	우울	불안	적대감
실패/무능	.52***	.54***	.39***
정서지지 결여	.52***	.37***	.36***
절대기준/완벽	.14*	.19**	.12
비분리	.36***	.43***	.29***
예속/굴종	.42***	.35***	.20**
불신	.46***	.40***	.33***
내성취약	.43***	.33***	.38***
배려/희생	.05	.12	-.07
결함	.52***	.49***	.39***
고립/단절	.57***	.47***	.40***
의존	.36***	.35***	.29***
상실우려	.54***	.46***	.42***
파국	.48***	.57***	.52***
충동/분노	.36***	.43***	.42***
자기우월	.11	.11	.21**
몰락	.52***	.55***	.33***
전체도식	.63***	.60***	.48***

* $p < .05$, ** $p < .01$, *** $p < .001$

중다회귀 분석 결과

우울, 불안, 및 적대감 등의 정서 증상을 설명하는 주요 부적응 도식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본 1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각각의 정서 증상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16개 부적응 도식을 예언변인으로 하여 step-wise 방법으로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각기 표 5, 6, 및 7에 제시하였다.

우울 증상에 대한 중다회귀 분석에서는 고립/단절, 몰락, 상실우려, 내성취약 등 4개의 부적응 도식들이 회귀식에 투입되어 전체 변량의 43.7%를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4개의 부적응 도식들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모두 정적 부호(+)를 가져 이 도식들의 특성이 더 많아질수록 우울 증상의 심각성 수준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 증상에 대한 중다회귀 분석에서는 파국, 몰락, 실패/무능, 절대기준/완벽 등 4개의 부적응 도식들이 회귀식에 투입되어 전체 변량의 44.1%

표 5. 우울 증상에 대한 부적응 도식의 중다회귀 분석 결과

예언변인	회귀계수	R ²	R ² 변화량	F변화량	p값
고립/단절	.252	.324	.324	106.798	.000
몰락	.270	.403	.079	29.547	.000
상실우려	.190	.427	.024	9.230	.003
내성취약	.122	.437	.010	4.000	.047

표 6. 불안 증상에 대한 부적응 도식의 중다회귀 분석 결과

예언변인	회귀계수	R ²	R ² 변화량	F변화량	p값
과국	.298	.323	.323	106.454	.000
몰락	.236	.397	.074	27.234	.000
실패/무능	.218	.422	.025	9.577	.002
절대기준/완벽	.138	.441	.019	7.365	.007

표 7. 적대감 증상에 대한 부적응 도식의 중다회귀 분석 결과

예언변인	회귀계수	R ²	R ² 변화량	F변화량	p값
과국	.397	.267	.267	81.107	.000
충동/분노	.268	.310	.043	13.775	.000
배려/희생	-.137	.327	.018	5.865	.016

를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4개의 부적응 도식들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모두 정적 부호(+)를 가져 이 도식들의 특성이 더 많아질수록 불안 증상의 심각성 수준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적대감 증상에 대한 중다회귀 분석에서는 과국, 충동/분노, 배려/희생 등 3개의 부적응 도식들이 회귀식에 투입되어 전체 변량의 32.7%를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3개의 부적응 도식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과국과 충동/분노는 정적 부호(+)를 가진 반면, 배려/희생은 부정적 부호(-)를 가져 적대감 증상에 대한 영향의 방향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국과 충동/분노의 도식 특성이 더 많아질수록, 반면에

배려/희생의 도식 특성이 더 적어질수록 적대감 증상의 심각성 수준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응 도식과 편집성 및 경계선 성격특성간의 관계

상관 분석 결과

부적응 도식과 주요 성격장애 특성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본 2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16개 부적응 도식과 편집성 및 경계선 성격특성간의 상관을 구하였다. 표 8에서 편집성과 경계선 성격특성은 16개의 부적응 도식들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배려/희생의 경우는

표 8. 부적응 도식과 편집성 및 경계선 성격특성과의 상관

부적응 도식	편집성	경계선
실패/무능	.61***	.52***
정서지지 결여	.67***	.46***
절대기준/완벽	.31***	.22***
비분리	.54***	.43***
예속/굴종	.51***	.38***
불신	.71***	.45***
내성취약	.41***	.61***
배려/희생	.16**	.18**
결함	.64***	.48***
고립/단절	.64***	.53***
의존	.46***	.51***
상실우려	.59***	.61***
파국	.66***	.53***
충동/분노	.55***	.62***
자기우월	.33***	.27***
몰락	.60***	.43***
전체도식	.76***	.65***

* $p < .05$, ** $p < .01$, *** $p < .001$

다른 부적응 도식들에 비해 편집성 및 경계선 성격특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기는 했으나 그 크기가 매우 작은 상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다회귀 분석 결과

편집성 및 경계선 성격특성을 설명하는 주요 부적응 도식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 본 2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각각의 성격특성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16개 부적응 도식을 예언변인으로 하여 step-wise 방법으로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표 9와 표 10에 제시하였다.

편집성 성격특성에 대한 중다회귀 분석에서는 불신, 파국, 정서지지 결여, 실패/무능, 절대기준/완벽 등 5개의 부적응 도식들이 회귀식에 투입되어 전체 변량의 64.7%를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5개의 부적응 도식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모두 정적 부호(+)를 가져 이 도식들의 특성이 더 많아질수록 편집성 경향성은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편집성 성격특성에 대한 부적응 도식의 중다회귀 분석 결과

예언변인	회귀계수	R ²	R ² 변화량	F변화량	p값
불신	.331	.505	.505	318.009	.000
파국	.210	.596	.091	70.071	.000
정서지지 결여	.190	.626	.030	25.094	.000
실패/무능	.183	.638	.012	9.819	.002
절대기준/완벽	.112	.647	.010	8.555	.004

표 10. 경계선 성격특성에 대한 부적응 도식의 중다회귀 분석 결과

예언변인	회귀계수	R ²	R ² 변화량	F변화량	p값
충동/분노	.274	.382	.382	192.778	.000
상실우려	.324	.500	.118	73.584	.000
내성취약	.319	.556	.056	38.745	.000
예속/굴종	-.136	.564	.009	6.112	.014
파국	.120	.572	.007	5.190	.023

경계선 성격특성에 대한 16개 부적응 도식의 중다회귀 분석에서는 충동/분노, 상실우려, 내성취약, 예속/굴종, 파국 등 5개의 부적응 도식들이 회귀식에 투입되어 전체 변량의 57.2%를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의 부적응 도식 중 예속/굴종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부적 부호(-)를 가진 반면, 나머지 4개의 부적응 도식들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모두 정적 부호(+)를 가져 경계선 성격특성에 대한 영향의 방향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충동/분노, 상실우려, 내성취약 및 파국의 도식 특성이 더 많아질수록, 반면에 예속/굴종의 도식 특성은 더 적어질수록 경계선적 경향성은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초기 부적응 도식이 심리적 부적응, 즉 전반적인 정신병리, 주요 정서 증상(우울, 불안, 및 적대감), 그리고 주요 장애적 성격 특성(편집성 및 경계선 성격특성 등)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초기 부적응 도식의 임상적 타당성과 유용성에 대한 부가적인 경험적 증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그 의미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초기 부적응 도식과 전반적 정신병리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절대기준/완벽, 배려/희생, 자기우월의 세 가지 도식을 제외한 13개 도식들이 전반적 정신병리의 지표인 간이정신진단검사의 전체심도지수와 .39~.60에 이르는 비교적 큰 크기의 정적 상관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기 부적응 도식들의 대다수가 전반적 정신병리와 의미있게 관련된다는 것이다. 특히, 전체심도지수를 종속변인으로 한 중다회귀분석에서 파국,

결함, 몰락, 고립/단절, 절대기준/완벽의 다섯 가지 도식들은 전반적 정신병리의 전체 변량의 거의 절반(49.7%)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인들이 경험하는 정신병리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초기 부적응 도식이 매우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정신내·외적 결합을 지닌 개인이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완벽주의적(또는 이상적) 기준을 설정하지만, 그 기준에 도달하는데 실패하여 결국 파국과 몰락을 경험하고 인간관계에서도 고립과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정신병리에 관한 일반적 상식과 임상적 경험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적응 도식과 우울, 불안, 적대감 등의 주요 정서 증상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서도 역시 절대기준/완벽, 배려/희생, 자기우월의 세 가지 도식을 제외한 13개 도식들이 작게는 .29에서부터 크게는 .57에 이르는 정적 상관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초기 부적응 도식과 전반적 정신병리와의 관계와 유사한 패턴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증상과 관련한 중다회귀 분석에서는 고립/단절, 몰락, 상실우려, 내성취약 등의 네 가지 도식들이 우울 증상 전체 변량의 43.7%를 설명하였고, 불안 증상의 경우에는 파국, 몰락, 실패/무능, 절대기준/완벽 등 네 가지 도식들이 불안 증상 전체 변량의 44.1%를 설명하였으며, 적대감 증상의 경우에는 파국, 충동/분노, 배려/희생의 도식들이 32.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정서 증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 초기 부적응 도식들이 각 증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과연 증상-유관성을 지니는가는 이론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와 관련하여 Beck(1976)은 내용-특수성 가설(contents-specificity hypothesis)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가설의 핵심은 각각의 정서

증상들은 각 증상과 관련되는 독특하고 특수한 인지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울 증상은 인간관계 영역에서의 상실과 성취영역에서의 실패와 관련된 인지 내용이 주를 이루며, 불안의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위협과 위해에 대한 예기(anticipation of danger and/or harm)와 관련된 인지 내용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다(Clark, Beck, & Stewart, 1990).

본 연구의 결과를 이 같은 특수성 가설에 비추어 살펴보자면, 우울 증상의 경우 인간관계 영역에서의 상실을 의미하는 고립/단절과 상실우려의 도식, 그리고 성취 영역에서의 실패를 의미하는 몰락 도식이 우울 증상을 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특수성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인 것으로 여겨진다. 불안 증상의 경우에는 파국, 몰락, 실패/무능 등의 위협과 위해에 대한 예기를 의미하는 도식들이 불안 증상을 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역시 특수성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인 것으로 여겨진다. 적대감 증상의 경우에는 파국이라는 개인적으로 매우 위급하고 절박한 경험에 즈음하여 타인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철회하고(즉, 배려/희생의 감소) 충동/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적대감 증상과 관련한 본 연구의 결과 역시 특수성 가설과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편집성 및 경계선 등의 장애적 성격특성과 초기 부적응 도식과의 관계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자면, 절대기준/완벽, 배려/희생, 자기우월의 세 가지 도식들은 편집성 및 경계선 성격특성과 상관되는 정도가 .33 이하였던 반면, 나머지 13개 도식들은 이 두 가지 성격 특질들과 모두 .41 이상의 비교적 큰 크기의 정적 상관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집성 성격 특성과 관련한 중다회귀분석에서 불신, 파국, 정서지지 결여, 실패/무능, 절대기준/

완벽의 도식들이 전체 편집성 성격특성 변량의 64.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도식들은 편집증 환자들이 지니는 성격특성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는 것들이다. Kinderman (1994)은 편집 성향자들이 매우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다는 Cameron(1963)의 주장을 Stroop 과제를 사용한 실험연구에서 경험적으로 확인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의 실패/무능 도식은 낮은 자존감 또는 열등감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훈진과 원호택(1995b)은 편집증적 경향성과 자기개념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편집성향자들이 도덕적 기준이 매우 높다는 점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의 절대기준/완벽 도식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Hingley(1992)는 정신분석적 문헌을 개관하면서 편집성향자들은 자기에 대한 위협에 매우 민감하며, 지각된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 매우 극단적인 외부 귀인을 하는 특징을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자기에 대한 위협에 극히 민감하다는 것은 정신내적으로 매우 심각한 파국 경험이 무의식적으로 상존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이에 대해 매우 극단적인 외부 귀인으로 자기를 보호하려 한다는 것은 위협 요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부적으로 투사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그 결과로 인간관계에서 극도의 불신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 타인들로부터 적절한 정서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본 연구에서 편집성 성격 특성을 의미있게 설명한 것으로 나타난 파국, 불신, 정서지지 결여 등의 도식은 편집성향자들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계선 성격특성과 관련한 중다회귀분석에서는 충동/분노, 상실우려, 내성취약, 예속/굴종, 파국 등의 5개 도식들이 전체 경계선 성격특성 변량의

57.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치감과 정체감에서 매우 큰 혼란을 느끼고 그로 인해 심각한 파국 경험을 되풀이하는 경향이 있고, 조그만 좌절도 인내하지 못하고 타인들을 향해 분노와 적대감을 표출하거나 반대로 자기-파괴적 행동을 반복해서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이들의 인간관계는 크게 두 가지 동기에 의해 좌우되는데, 하나는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해 그들에게 밀착하여 예속되고 굴종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타인들로부터 일방적인 휘둘림을 받지 않기 위해 그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예: 타인을 적대시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것)시키는 것이다. 특정한 인간관계에서 이 두 가지 동기가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이들이 맺는 인간관계는 극히 불안정하고 가변적이다.

이와 같은 점들에 주목하여 주요 경계선 성격 특질로서 상실과 유기에 대한 만성적 공포, 충동성,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한 내성, 잦은 분노 폭발, 의존과 독립을 극단적으로 오가는 불안정한 인간관계 패턴, 미약한 자기-가치감, 만성적 공허감 등이 언급되어 왔다(조성호, 2000; Gunderson, Mary, & Zanarini, 1987; Millon & Davis, 1996). 본 연구에서 경계선 성격 특질의 전체 변량의 절반 이상을 설명한 것으로 나타난 다섯 가지 부적응 도식들은 경계선 성격장애와 관련한 기존의 이론적 및 임상적 관찰과도 잘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초기 부적응 도식과 전반적 정신병리, 우울, 불안, 적대감 등의 정서 증상, 편집성 및 경계선 성격특질 등과의 상관 분석에서 절대기준/완벽, 배려/희생, 자기우월 등의 세 가지 도식들이 나머지 13개 도식들과 일치하지 않는 상관 패턴을 꽤 일관적으로 나타냈다는 점은 초기 부적응 도식과 관련한 이전의 연구 결과들(조성호, 2001a, 2001b)

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조성호(2001a)는 한국판 도식 질문지에 대한 상위 요인분석에서 16개의 부적응 도식들이 크게 두 가지 상위요인으로 묶여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자기우월과 절대기준/완벽 도식은 ‘팽창된 자기’(inflated self) 요인에 같이 묶이는 반면, 배려/희생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도식들은 ‘취약한 자기’(vulnerable self) 요인에 같이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부적응 도식과 적응적 및 부적응적 방어유형간의 관계를 조사한 조성호(2001b)의 연구에서는 팽창된 자기에 소속된 두 가지 도식(자기우월, 절대기준/완벽)과 어느 상위요인에도 소속되지 않았던 배려/희생 도식이 적응적 방어유형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이고 부적응적 방어유형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인 반면, 나머지 13개 도식들은 이와 반대되는 상관 패턴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들은 이 세 가지 도식들이 자기-고양(self-enhancement)과 자기-팽창(self-inflation)을 통해 정신내·외적 위협에 대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심리적 부적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데 관여됨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과연 이 세 도식들이 ‘부적응적’ 도식의 일부로서 계속 취급되어야 할지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문제를 제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도식들이 진정한 ‘적응적’ 도식으로 다시 분류되어야 할지, 아니면 내면적 자기-취약성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위장된’ 적응적 도식인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부가적인 경험적 연구를 통해 보다 신중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하자면, 초기 부적응 도식은 전반적인 정신병리 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적대감 등의 주요 정서 증상 각각에 대해서, 그리고 편집성, 경계선 등의 주요 장애적 성격특질 각각에 대해서 기존의 이론적 입장과 임상적 경험에 잘 부합하는 설명력을 지

닌다는 점에서 이론적 및 임상적 타당성과 유용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점에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초기 부적응 도식을 이해함으로써 그들이 겪는 심리적 부적응을 한층 더 심도있게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며, 보다 궁극적으로는 일상에서의 삶의 문제는 마음 깊은 곳에 위치한 뿌리(즉, 인생 초기에 형성된 부적응 도식) 문제의 반영일 것이라는 점이 좀 더 분명해지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 부적응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초기 부적응적 도식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가지는지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여러 유형의 장애를 가진 임상 집단(특히, 정서 및 성격장애 집단)을 대상으로 초기 부적응이 심리적 부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나가는 작업을 계속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훈진, 원호택 (1995a). 편집성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 83-94.
- 이훈진, 원호택 (1995b). 자기개념과 편집증적 경향. 심리과학, 4(2), 15-29.
- 조성호 (2000). 경계선 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 조성호 (2001a). 한국판 도식질문지의 요인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77-192.
- 조성호 (2001b). 초기 부적응 도식과 방어유형 및 대인관계 특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3), 39-54.
- 홍상환, 김영환 (1998).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259-272.
- Beck, A. T. (1967). *Depression: Causes and treatmen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eck, A. T., & Freeman, A. (1990). *Cognitive therapy of personality disorders*. New York: Guilford Press.
- Beck, J. S. (1995). *Cognitive therapy: Basis and beyond*. New York: Guilford Press.
- Cameron, N. (1963). *Personal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Boston: Mifflin Company.
- Clark, D. A., Beck, A. T., & Stewart, B. (1990). Cognitive specificity and positive-negative affectivity: Complementary or contradictory views on anxiety an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9, 148-155.
- Fenigstein, A., & Vnable, P. A. (1992). Paranoia and self-conscious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129-138.
- Gunderson, J. G., Mary, C., & Zanarini, M. (1987). Current overview of the borderline diagnosi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8, 5-11.
- Hingley, S. M. (1992). Psychological theories of delusional thinking: In search of integration.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5, 347-356.
- Kinderman, P. (1994). Attentional bias, persecutory delusions, and the self-concep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7, 53-66.
- Lee, C. W., Taylor, G., & Dunn, J. (1999). Factor

- structure of the Schema Questionnaire in a large clinical sampl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3, 4, 441-451.
- Millon, T., & Davis, R. D. (1996). *Disorders of personality: DSM-IV and beyond*.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 Morey, L. C. (1991).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Schmidt, N. B., Joiner, T. E., Young, J. E., & Telch, M. J. (1995). The Schema Questionnaire: Investigation of psychometric properties and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a measure of maladaptive schema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9, 3, 295-321.
- Segal, Z. (1988). Appraisal of the self-schema: Construct in cognitive models of depression. *Psychological Bulletin*, 103, 147-162.
- Young, J. E. (1990). *Cognitive therapy of personality disorders: A schema-focused approach*.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 Press.
- Young, J. E. (1991). *Early maladaptive schemas*. Unpublished manuscript.
- 원고접수일 : 2002. 9.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2. 11. 25
게재결정일 : 2002. 12. 3

K C I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Psychological Unadjustment

Seong-Ho Cho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was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sixteen early maladaptive schemas, proposed by Young(1990)'s schema-focused therapy, in explaining psychological unadjustment such as general psychopathology, major emotional symptoms(e.g., depression, anxiety, hostility), and disordered personality traits(e.g., paranoid and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Questionnaires to measure those described above were administered to two independent samples, which consisted of 225 and 314 college students respectively, and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through correlational and regression analysis method.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d that the early maladaptive schemas had a good accountability, in theoretical and clinical stances, in explaining psychological unadjustment.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also presented.

Key Words : early maladaptive schemas, psychological unadjustment